

리듬과 제의적 의식

기도문을 읊조리고, 고개를 숙이고, 제기들을 정성들여 준비하는 과정들은 영적인 삶의 단편들이 모인 복합체로서의 제사의 과정들이다. 전통적 사회에서 계절과 절기에 따라 행해지는 이런 연중행사적인 의식들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삶에 일종의 반복적인 패턴을 부과해 왔고, 역사상 존재했던 다양한 신앙체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런 제의적 행사를 통해 정의해 왔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제사안에서의 사람들의 행위는 단지 육체적인 움직임이 아닌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사회적 기호이다.

하지만 제의적 공간과 연중행사적 제사는 현대사회에서 과거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절기적 의식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 사회에서같은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열차시간표나 영화 스케줄이 우리의 삶에 더욱 밀접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것이다. 일출과 일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자연현상 그 자체,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신체가 지니는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격언처럼 우리의 정신은 신체와 상호 격리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체는 반드시 열등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단순화된 이분법적 사고가 현대의 복잡 다단한 디지털화 된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 대한 이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은 과거사회의 목가적 풍경이나 문화적 순수성에 대한 동경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현대 지구촌 곳곳의 대부분의 분쟁들은 종교적, 문화적 이분법적 이상론에 사로잡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에서 이 전제는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한다. “리듬과 제의적 의식” 전은 이 문제에 대한 참여 작가들의 논평이다. 거창한 종교적 신앙, 정치적 신념, 거기서 파생된 교조적인 의식이 아닌, 자신의 반복적 일상에 대한 자각적 성찰이야말로 현대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논점이라는 것에 작가들은 인식을 같이한다.

진열장의 상품들, 잔 케이지가 정의한 도교정신, 광고 문구, 불교적 가르침, 마이크로 칩, 아이러니, 물, 고요함, 사진, 광적인 움직임, 소리등의 소재와 매개체들은 제사적 기능을 지닌 복합체로서의 이번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 들이다. 서로 부합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상호 모순적인 이 다양한 요소들은 작가들의 문제제기에 있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전시공간내의 전기적, 기계적, 그리고 구조적이고 반복적 리듬은 관객들에게 자신과 주변의 현재상황을 재 인식, 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전시는 특정한 종교나 철학을 창작의 전제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재현의 형식에 있어 불교와 도교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들은 모두 이런 그들의 설명이 현대 서양미술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소위 정신적인 것에 대한 동경, 다시말해 “동양적인 것”에 대한 막연한 환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시가 아시아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도 자신들의 의도가 단지 이런 “동양적인 것”을 빌려 관심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전시 자체를 통해 동양의 사회에 문화에 대한 참여 작가들의 좀 더 성숙된 이해와 소통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